

EU, PET Chip 반덤핑 조사 발표

한국산에 대한 재심 신청 받아들여 ... 국내 화섬업계 다시한번 긴장

유럽연합(EU) 집행위가 한국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Chip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반덤핑 조사 결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면 한국산 제품의 EU 수출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플라스틱 음료수병으로 쓰이는 PET Chip의 2002년 EU 수출은 4789만달러(약 575억원)에 이른다.

또 최근 EU 집행위는 역내 플라스틱업계가 제기한 한국산 PET Chip에 대한 반덤핑 조치 재심 여부를 검토중이었으며, 5월23일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수출업체는 1999년 9월 피소돼 2000년 11월 말부터 타이완 등 5개국과 함께 EU에서 반덤핑 규제조치를 받아왔다. 국내기업은 당시 톤당 2.82-148.3유로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유럽플라스틱제조업자협회(APME)는 중국, 파키스탄산 PET Chip에 대한 신규 반덤핑 제소와 동시에 기존 반덤핑 규제국가 중 한국과 타이완산 제품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5/27>